

조선대병원 파업 가시화...노조 74% "찬성"

간호사 등 1078명 중 805명 찬성...“29일부터 무기한 파업” 선언 오늘 본교섭...환자들 “전공의 없는데 간호사마저...의료붕괴 우려”

전공의들이 떠난 조선대병원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결국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7%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번 투표에는 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177명 중 1078명이 참여했다. 이 중 805명이 쟁의행위 찬성에 투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파업시작일까지 기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조선대병원과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와 보호자들도 파업 예정일인 오는 29일까지 병원과 노조가 타결점을 찾아 '의료붕괴' 사태까지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조는 23일 조선대병원과 본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열린 마음으로 병원과 성실히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조선대병원이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감을 방기하지 않고 성실한 교섭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측도 파업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최대한 입장차를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와 병원간 입장차가 커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병원 측에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협약 조건으로 노조는 간호사 파견근무 금지, 토요일 외래 진료 금지, 야간근무개선, 자녀돌봄휴가 확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노조 측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측은 의정감등으로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경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협상기한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파업돌입의 마지노선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2차 조정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7일 2차 조정도 무산되면 28일 파업전야제를 열고 29일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 보건의료 노조는 전남대병원과 당분간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병원 측이 매주 수요일마다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 입장을 좁혀보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당분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국사건 임용배제 피해 교원 광주교육청, 15명 회복 나서

광주시교육청이 1980년대 시국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 15명의 피해회복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시 임용제외 교원 15명 전원에 대한 피해회복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대상자들을 배제하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교단에 서지 못했다.

이들은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거나 특별채용을 통해 현재 광주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회복의결에 따라 이들은 누락된 호봉과 경력을 반영한 임금을 받게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결렬...파업 가나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지난 6월에 요구했던 15만 9800원의 기본급 인상,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지난해 기준 성과급 배분, 고용안정과 미래비전 제시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청을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2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측과 추가 교섭 가능성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지난 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노조는 지난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6.43%의 찬성률을 얻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20일 제14차 임단협 교섭을 갖기로 했으나 하루 전날인 1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감전사하면서 미뤄졌다.

올해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는 4차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공장에서는 이달 19일 60대 외주업체 노동자가 감전사했고 지난달 2일에는 급정거한 지게차에서 쏟아진 원자재를 맞은 40대 노동자가 치료 도중 사망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미국 조지아공장(10일)과 곡성공장(29일)에서 끼임 사고로 2명이 숨졌다.

/김다민 기자 kdi@

광주 치과병원서 폭발물 터져...환자 등 긴급 대피



22일 오후 광주시 서구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가 든 상자가 폭발한 가운데 폭발이 일어난 병원 로비에서 소방대원들이 추가 잔여물들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70대 피의자 검거 “진료 불만”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트린 70대 긴급체포됐다.

A(78)씨는 과거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병원 진료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서부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2일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광주시 서구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가져다 놓고 폭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로 인해 내부 집기가 그을리고 천장재가 떨어져 나갔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됐다.

당시 병원 건물에는 환자 등 95명이 있었으나 전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인화물질이 든 통을 부탄가스 4개로 감싸는 방법으로 폭발물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당시 점심시간이었으나 문은 열려 있었고 A씨는 폭발물을 담은 종이상자를 병원 출입문 인근에 두고ライター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 간호사들이 A씨의 범행을 목격했으나 대응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탄 A씨는 이후 광주 광산경찰서 인근에서 내려 자수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폭발이 일었던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들과 인근 상가 주민, 시민 등은 건물 바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인근 상가 주민들은 “쿵, 쿵 하는 소리가 서너 번 들렸다”,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 진료에 불만을 가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대 ‘또 내홍’...법인 이사장 퇴진 촉구 갈등 부당한 학사 개입·이사회 사유화 주장...법인 측 “사실과 달라”

조선대 구성원이 학교법인과 갈등을 빚는 등 조선대가 또다시 학내 갈등을 겪고 있다.

조선대학교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2일 조선대 본관에서 법인이사장 퇴진촉구 대회를 열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 총동창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위는 퇴진 촉구 선언문에서 “이사장은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인이사회의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됐음에도 1인 지배체제 강화를 통해 이사회를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사장이 대학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개교 이래 최대 사업인 새병원 건축을 구성원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인 이사장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천막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인은 “이사의 장기연임을 제한하려

고 정관을 개정했고, 이사장도 임기를 마치면 직을 내놓기로 약속했는데 사유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조선대 구성원이 학사개입 사례로 20건을 거론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는데,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고 인용된 2건의 경우 교육부와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신축에 대한 논의는 학내 구성원 다수가 참여해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대 구성원과 현 법인과 갈등은 이번이 두번째다.

조선대 교원노동조합, 교수평의회 등은 2022년 법인 이사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자 ‘학사 개입을 자행해 대학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